

오순절 후 스무 번째 / 강단 교류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0<sup>TH</sup>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10월 23일 오전 10시  
인도: 이성우 장로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621 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2 번 반복)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3 번 시편 99 편	찬양팀
*고백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 (Psalm) 146:1-5	김현 집사
찬 양 Anthem	“피난처 되신 주”	찬양대
설 교 Sermon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차타누가 한인장로교회)	류상수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류상수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와 쉽게 타협했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성을 여과없이 드러낼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거짓된 말과 위선적인 행동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거짓없는 진실한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5:1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개역개정 시146:5)

“Blessed is he whose help is the God of Jacob, whose hope is in the LORD his God.” (NIV Psalm 146: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23 (주일)	10/24 (월)	10/25 (화)	10/26 (수)	10/27 (목)	10/28 (금)	10/29 (토)
왕하	왕하4	왕하5	왕하6	왕하7	왕하8	왕하9	왕하10
딤후	딤후1	딤후2	딤후3	딤후4	딤후5	딤후6	딤후1
단	단8	단9	단10	단11	단12	호1	호2
시	시116	시117,118	시119:1-24	시119:25-48	시119:49-72	시119:73-96	시119:97-120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0/26수 오후7:30)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요일2:1-6)
토요 새벽기도회(10/29토 오전6:30)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니이다” (시99:1-9)

지난 주일(10/16)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20)

“맛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출 17:1-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자, 그들은 한동안 머물렀던 신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경로(노정)대로 '르비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마실 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제안한 대로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결혼식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자신 옆에 누워있던 것과 같고... 또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올랐는데, 한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큰 풍랑을 만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모세는 다급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의 간구를 들으셔서, 호렘 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물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1)첫째,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반드시 물이 없는 '르비담'을 지날 때가 있고, 2)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며, 3)마지막으로, 우리는 반석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험'이라는 뜻의 '맛사와'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불신앙의 모습이 아닌,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설/교/ 메/모